

여름철 재난·안전사고 24시간 비상관리

소방청은 6월1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신제적 대비·대응으로 인명피해 최소화해 중점을 뒀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의 상승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에는 크고 작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산사태, 하천범람, 저지대 주택과 도로 침수 등의 자연재난과 물놀이 사고,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 내달부터 대비·대응체제 돌입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 예상

소방청은 24시간 비상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는 등 대응체제를 갖추 계획이다

소방청은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수중펌프 등 수방장비 6035대와 구명환 등 수난구조장비 39종(3만7907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명피해(침수) 우려지역 2648개소에 대해 1회 4차례 기동순찰을 실시한다.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피해 집중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배치하고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실 비상 점

수대(467대)도 보강 운영한다.

또 집중호우와 태풍이 내습하면 위험지역의 경우 주민대피와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필요에 따라 인근 시·도 소방력도 지원한다.

물놀이 등 수난사고에 대비해선 안전캠페인과 대국민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해수욕장 등 293개소의 물놀이 사고 빈발장소에 1일 1839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 안전 사고 방지와 구조상황에 대비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 발생에 대해선 119폭염구급대(1384대)를 운영해 열음조끼,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대응 구급물품을 구급차에 비치한다. 온열질환 예방과 응급처치법, 지역별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현황을 119로 문의전화 시 안내해 준다.

조종목 소방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개개인의 안전을 위해 재난과 안전사고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폭풍 보도 美방송기자 2명 나무에 깔려 사망

이열대성 폭풍 알베르토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28일(현지시간) 노스 캐롤라이나주 폴크 카운티에서 방송기자 2명이 강풍으로 뿌리가 뽑혀 넘어진 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 쿠퍼 노스 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이 같은 사고 소식을 전하면서 주민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알베르토는 미 남부 지역 곳곳에 홍수를 일으키는 등 많은 피해를 냈고 있다.

쿠퍼 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WYFF-TV의 앵커 마이크 매키와 촬영기자 애런 스멜처 등 2명이 알베르토에 대한 보도를 위해 이동하던 중 나무가 쓰러져 차량을 덮치면서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머리스티오 스티븐스 대장은 이들이 알베르토 관련 보도를 위해 176번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나무가 SUV 차량을 덮었다고 말했다.

매키와 스멜처는 사고 직전 타이런의 제프리 테너트 소방서장을 인터뷰했었는데 테너트는 비가 너무 많이 오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말했다. 이들과 헤어진 후 10분만에 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타이런 지역에는 28일 하루 동안 50mm의 비가 내렸다. 많은 비로 땅이 물러지면서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힌 것으로 보인다.

매키와 스멜처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WYFF-TV에서 일해 왔으며 스멜처 역시 WYFF-TV에서 10년 넘게 일해 왔다.

가자지구서 이스라엘 주거지역 박격포 공격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자치구역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의 주거 지역으로 박격포 공격이 이뤄졌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의 마을로 박격포 약 20기가 날아와 일대에 경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이 보도했다.

즉각적인 피해 보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공격은 오전 8시경에 발생했으며 포탄 하나는 유치원 근처에 떨어졌다. 당시 유치원에 등원한 아이들은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은 박격포 대부분을 아이언볼 방공망으로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공격은 2014년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국경 일대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이 이스라엘군이 총출하는 사태가 벌어진 이래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군은 보복 차원에서 가자지구 내 하마스 거점을 포격했다고 전해졌다. 군은 추가적인 응징 공습을 실시할 전망이다.

작년 12월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을 계기로 이-팔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가자지구에서는 울퉁불퉁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국제사회가 실탄을 동원한 시위대 폭력 진압을 문제 삼아 하마스이탈로 폭력을 부추기며 자국 국경을 침해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네덜란드 법원, '제3의 성' 사상 첫 인정

네덜란드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출생 기록부에 올릴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네덜란드 남부 루르몬트에 위치한 림부르크 지방법원은 28일(현지시간) 출생 당시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명확히 결정할 수 없었던 1명의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P통신 및 네덜란드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원고는 1961년 출생 당시 성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그의 부모가 출생기록부에 남성으로 기록했다. 그는 이후 성전환수술을 통해 여성으로 전환하고 서류상 성별도 여성으로 바꿨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여성이라는 성도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느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 기록되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네덜란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는 출생 기록부에 '결정되지 않은 성'으로 기록될 수 있게 됐다.

네덜란드에서 제3의 성을 출생기록부에 올릴 수 있게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으나,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2007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네덜란드 사상 처음으로 제3의 성을 인정기로 한 네덜란드 법원 재판관은 "사회 법률적 발전에 따라,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출생기록부에 제3의 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공은 입법자들에게 넘어갔다"고 덧붙였다.

'유권자에 음식 제공'

광주선관위, 기초의원 후보-사무장 檢 고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기초의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검찰에 나란히 고발됐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기초의원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선거사무장 B씨와 함께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열린 지인 모임을 방청해 유권자이기도 한 일부 구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등 선거 관련 발언을 하고 사무장 B씨가 식사비 등을 대신 결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안에 있는 유권자나 그 유권자와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4조에서는 선거사무장 역시 공식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은홍 기자



떡메치기 체험해요 29일 서울 금천구청에서 열린 '생태텃밭 모내기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부대행사 프로그램인 떡메치기 체험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실서 사과문 낭독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교실에서 낭독하게 하는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광주의 한 학교가 교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가해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문을 낭독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과 분리돼 별도의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 또 사과문을 작성한 뒤 학생들 앞에서 읽게 하는 것은 스스로 학교 폭력 가해자임을 밝히는 것이며 상당한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

광주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사과문 낭독 조치가 교육적 목적 차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식하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대학교수의 열차려와 토의특별교육 수강 강요 등도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됐다.

한 대학의 교수는 소방교육 도중 일부 학생들이 떠드다는 이유로 조교를 시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여동안 '발벌려 뛰기' 허겁둥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 등을 시켰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이에 대해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열차려가 실시된 점과 다른 교육적 지도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특별훈련을 지시했다는 점에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조치했다.

또 대학의 토의 성적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겨울방학 중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벌점을 주는 강의방식도 헌법 제10조가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밖에도 학교 측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등록돼 있는 교수의 지문인식 정보를 삭제해 교수연구등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행위도 헌법 제15조에 규정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조치로 판단돼 권고조치했다.

조인호 기자

국민 여러분께
정말
안녕하세요?

모두, 안녕하세요?

국가건강검진이
국민의 건강을 지킵니다

건강한 정보, 건강한 생활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기 건강진단	영양아 건강검진	임 검진	구강 검진
---------	------------	----------	------	-------

'국가건강검진' 효과 비교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42%p 감소		18%p 감소	

*본말리는 건강진단이 중요하나, 미리 미리 건강 챙기세요.

인천보건진흥원 | 동선로 129 | 인천광역시 |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577-1000